

작품 내용

제 목	합의금 대신 남은 것
내 용	어느 날과 다른없는 평일 아침이었다. 회사 현관에 수북이 쌓인 우편물 봉치를 보면서도 별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다. 어차피 대부분은 광고물이거나 홍보 책자일 테니, 대충 훑어보고 버리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손에 쥘고 들고 사무실로 올라갔다. 책상 위에는 어제 마시다 만 커피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오늘 처리해야 할 일들이 이미 머릿속에 줄지어 있었다. 책상에 앉아 하나씩 우편물을 넘기던 중이었다. 어느 봉투 앞에서 손이 문득 멈췄다. 보낸 이는 00디자인, 낮익은 이름이었지만 어쩐지 느낌이 이상했다. 평소 이 회사에서 오는 건 디자인 샘플이나 두툼한 책자였는데, 지금 손에 든 건 그것치고는 지나치게 얇고 딱딱했다. 뭐지, 싶은 순간 나도 모르게 봉투를 왼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겉면을 몇 번이고 다시 훑어봤지만, 별다른 표시는 없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내용증명, 이 세 글자가 눈에 들어온 순간 머릿속이 잠깐 하얘졌다. 내용인즉슨, 우리 기관이 만든 디지털 책자에 자신들이 저작권을 가진 폰트가 사용됐다는 것이었고, 이를 입증하듯 채증 시간까지 선명하게 찍힌 캡처본이 함께 동봉돼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엔 연락을 달라는 짧은 요구가 적혀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으면서도, 그 캡처본 한 장이 주는 무게감 앞에서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종이 한 장에 불과했지만, 그 무게는 손에 든 어떤 서류보다도 무겁게 느껴졌다. 다시 자리에 앉아 문서를 내려다봤다. 폰트에 저작권이 있다고? 우리가 직접 이 폰트를 골라 무단으로 쓴 것도 아니고, 애초에 디자인 자체를 외주로 맡겼던 건데 어째서 이게 우리 책임이 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별별 생각이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휘감는 동안에도, 어쨌든 확인은 해야 한다는 생각에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용증명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를 드는 순간, 아직 마음의 결정을 다 내리지 못한 채로 살짝 떨렸다. 전화를 받은 건 한 남자였고, 용건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사용료 200만원을 내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게 건당 비용이라는 점이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연도별로 제작해온 책자를 전부 합치면 5개년만 해도 1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도무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에, 더 들을 것도 없이 일단 전화를 끊었다. 숫자를 듣는 순간,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던 지난 5년치 책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엔 디자인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몇 년째 거래해온 곳이니만큼, 이게 대체 무슨 일이고 물으면 뭐라도 시원한 답이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대표라는 사람은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더니, 이내 자기 잘못은 아니라며 우기기 시작했다. 몇 년을 함께 일해온 사이에서 나올 법한 대답이라기엔 너무나 무책임했고, 머릿속은 다시 한번 하얘졌다. 그동안 별문제 없이 주고받았던 수많은 계약과 회의들이, 순간 낯설게 느껴졌다. 그길로 법무팀을 통해 전국 다른 기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부터 알아보

다. 역시나 있었다. 그리고 법무팀의 판단은 명확했다. 우리가 이 돈을 낼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 내용을 정리해 위에 보고를 올렸고, 돌아온 답은 짧고 단호했다. 절대 주지 마라. 그 짧은 한마디에, 며칠간 무겁게 짓누르던 불안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마침 이미 뉴스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는, 이 업계 특유의 합의금 장사 수법이라는 사실까지 확인한 뒤라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다시 전화를 걸어, 돈은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상대는 고소장이었는지 내용증명이었는지,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튼 뭔가를 회사로 보내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 하는 찝찝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런데 웃긴 건, 그 뒤로 고소장도 내용증명도 오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그 뒤로 확실히 달라진 게 있다. 디자인 작업을 직접 하든 외주를 맡기든, 이제는 폰트 하나 이미지 하나를 고를 때도 먼저 라이선스부터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다. 예전 같았으면 별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을 파일 하나에도, 지금은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된다. 가끔은 그 확인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몇 분의 수고가 훨씬 낫다는 걸 이제는 안다.

그리고 이 습관은 나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 일이 기관 전체에 알음 알음 전해지면서, 저작권이란 영화나 만화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있는 줄 알았던 동료들도 이제는 폰트 하나에도 저마다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종이 한 장이, 그동안 우리 모두에게 당연하게만 여겨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만든 셈이다. 누군가에게는 억울한 청구서였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뜻밖의 가르침이었던 셈이다. 다만 그 권리를 존중하는 것과, 그것을 앞세워 겁부터 주는 방식까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 그 사실도, 그날 함께 알게 됐다.